

가정관리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Home Management Pattern & its Related Influential Variables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吳 京 姬

교 수: 李 貞 玕

Dept. of Home Management

Dept. of Home Management

Choongbuk National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structor : Kyung Hee, Oh

Prof. : Jeoung Woo, Lee

본 연구는 가정관리자의 관리유형과 가정생활 정보활용 수준 및 가족결속도간의 관계규명을 위한 시도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1명이상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가정생활주기별로 층화표집을 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중 기재미비로 제외된 나머지 704부를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onbach- α 계수 요인분석, 빈도, 백분율, Anova, χ^2 -test,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과 판별분석의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AS/PC program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관리유형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은 주부의 학력, 남편의 학력,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가정생활주기 및 시간지향이었다. 이 중에서, 가정관리 유형을 판별해 낼 수 있는 변인은 주부학력과 시간지향변인이었다.

둘째, 가정관리 유형별 배경변인의 가족결속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과업중심적 관리유형의 가정의 경우 과거지향적인 주부일수록 남편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주기가 축소기에 가까울수록 전체 정보활용도는 높고 더불어 가족결속도도 높았다. 반면에, 인간중심적 관리유형 가정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주부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체생활 정보활용도가 높고 더불어 가족결속도의 증대에 기여도가 높았다.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 교육수준

의 향상 및 사회 참여 증대 등으로 인한 변화는 가족 관계 및 가족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가정관리자의 관리행동에 변화를 유도하고 '가정관리자가 매일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명제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가정관리자가 어떤 인성적 속성과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본 논문은 1992년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실은 것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적 성향이 다를 수 있고, 가정관리자의 인성적 속성과 가치관은 가정관리행동의 필수적인 요소인 자원 즉, 정보 활용능력 및 관리자의 창의력에 반영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관리자가 가정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 가족들이 목표달성을 통해 얼마나 많은 만족감을 획득했는가 여부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얼마나 친근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조화롭게 살 수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가족을 사회화 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로 가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가정관리 행동을 통하여 관리자의 인성적 속성을 반영하는 관리유형과 가정생활의 주요 자원인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 그리고 가정관리행동의 바람직한 성과인 가족 결속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 유형을 구분하고 배경변인중 관리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변인을 밝히며, 가정관리 유형별로 가족 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관리자의 배경변인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밝힌다. 이렇게 하므로써 가정관리자의 자질형성 즉 인적 속성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가정관리 행동의 질적인 향상 및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1명이상 둔 주부로 국한시켰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 유형연구

Nichols(1964)와 Fites(1964)의 연구에서는 조직유형을 인간중심적 유형 즉, 가정내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안점을 둔 것과 과업중심적 유형 즉, 가

정내 일의 성과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Nichols는 가정내 일로 인하여 가족성원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양에서 나타난 성과와 조직유형의 관계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인간중심적인 유형을 취할수록 가족성원으로부터 가정내 일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Fites의 연구에서도 관리자의 관리성향이 과업중심적 가정 즉, 물적자원 중심인 가정보다 인간중심적 가정 즉, 가족관계 중심인 가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채옥희의 연구(1987)에서는 인간중심적 성향과 과업중심적 성향을 토대로 조직유형을 통합형, 현신행, 관련형, 분리형으로 구분하였고 연구결과 생활연륜이 길수록 관련형이 많은 반면, 생활연륜이 짧을수록 통합형이 많으며 도시부부의 가사노동 관리특성은 과업중심적인 성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는 가정관리자의 관리행동은 여러가지 주변 여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정관리적 성향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관리적 성향의 변화가 비일관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가정관리자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그때의 상황과 여건에 알맞는 관리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융통성과 창의성 및 지적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속성들이 관리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의사결정 그 자체를 관리로 보고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학자들은 가정관리 과정요소인 계획수립과 수행이 의사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중을 두고(Deacon & Firebaugh, 1975, 107) 가정관리자의 의사결정 성향분석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왔다. Eigsit 연구에서는 운명지향적인 사람은 과업중심적 양식을 나타낸 반면, 지배론적인 사람은 인간중심적인 양식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임정빈의 연구(1988)에서는 인본주의 및 집합주의 가치성향을 가진 사람은 인간중심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과업지향적 관리양식은 특정한 목표성취 및 경제적, 기술적 의사결정과 관련되고 인간지향적 관리양식은 인간의 최적의 발달에 목표를 두고 있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또한 과업지향적일수록 외부추구

적인 반면 인간지향적일수록 내부추구적이었다 (Price, 1973).

2. 관련변인

가정관리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성향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관리 유형에 관련된 배경변인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시간지향성을 외생변수로 선정하고 생활정보활용도를 내생변수로 가족결속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

① 연 령 : 주부의 연령은 조직유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1975) 가사노동 관리자 유형의 영향 변인이며, 가사노동관리에서 조직화는 가사노동 수행시 의사결정에 필요한 표준설정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1987). 임정빈(1988, 67-68)은 30대, 40대 주부의 의사결정 양식이 인간중심적인 반면, 20대와 50대 이후는 과업중심적임을 밝혔다. 반면에, 주부의 연령은 관리유형이나 주부가 받은 도움 정도와 연관이 없고(Newton, 1979, 47) 가사활동 조직에 영향변인이 아니었으며(Scheffield, 1976, 51) 관리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변인은 아니었다(Huquley, 1976, 46).

② 교육수준 : 이정우(1982, 189)와 Wetters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그리고 Huquley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가정관리에 주요 변인이라고 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가정내 일을 조직하는 가정관리자의 조직적인 사고가 증가하였고(Barclay, 1970, 48) 조직화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규칙화 수준도 높았다(채옥희, 1987, 67).

③ 소 득 : Huquley(1976, 46)와 Wetters(1967, 64)에 의하면 소득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자는 더욱 창조적이고 자원 활용성이 높았다. 또한 채옥희의 연구(1987, 68)에서는 가정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규칙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득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관리자의 관리적 성향에 다소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서 가정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④ 자녀수 : 자녀수는 가정관리 표준에 대한 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Ater, 1969, 63) 관리유형과 관계가 있으며(Mumaw, 1967, 110) 특히 자녀수가 많을수록 과업중심적 관리유형을 나타냈고 가족수가 많을수록 협조도 많았다(Nichols, 1964, 68)

⑤ 주부의 취업유무 : Barclay의 연구(1970, 49)에서는 주부의 취업은 가정내 일을 조직하는 가정관리자의 조직적인 사고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반면, Nichols는 주부의 취업기간은 주부가 받은 도움과 조직적인 관리유형을 판별하는 특성이라고 하였는데 13년 이상 Full Time으로 일한 주부는 도움을 적게 받았으나 13년 미만의 기간동안 취업한 주부보다 더 인간중심적 성향을 나타내었다(Nichols, 1964, 68).

⑥ 결혼지속년수 : 결혼지속년수는 의사결정양식의 영향변인으로(임정빈, 1988, 44) 결혼 초기와 후기에는 과업중심적 성향이, 그리고 결혼중기에는 인간중심적 성향이 강하다. 채옥희는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조직화 점수가 낮았다고 하였다. 반면 Mumaw와 Sponcil은 가사경험년수는 관리유형 판별변수가 아니라고 하였다.

⑦ 자녀의 연령 : 딸자녀의 연령은 가사노동 조직에 대한 주부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보며(Ater, 1969, 63), Mumaw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관리유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Nichols의 연구에서도 6~14세 딸을 둔 주부가 더욱 과업중심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Barclay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정관리자의 가사노동조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⑧ 가정생활주기 : 조직을 중심으로한 연구(채옥희, 1987, 54, 61)에서는 가정생활주기가 관리유형에 영향변인이었고 특히 분리형의 주부의 경우 막내자녀가 학령전인 경우 조직화 수준의 점수가 높았다. 의사결정 양식의 연구에서는 확대기에 인본주의 가치성향이 높았고 인간중심적인 의사결정양식을 나타내었다(임정빈, 1988, 43).

2) 시간지향

시간지향은 인성변수로서 인간 스스로가 시간지향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가 심리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시간지향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가정관리에서는 관리자의 행동지향에 대한 가치측정에서 시간적 가치지향을 연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즉 가정관리 행동은 계획수립과 수행을 연루하는 행동으로 앞에서 가정관리 개념정의의 한 바 있고 계획수립은 조직(Organization)의 한 부분으로서 미래지향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적이고 합목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가정관리자의 관리유형은 시간지향적 속성과 깊은 연계가 있을 것이다. 시간지향이란 명백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고와 감정의 방향 즉, 과거, 현재, 미래로 정의될 수 있는데, 미래 지향적인 주부의 경우 장래에도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관심을 기울이며 가능한 결과에 대해 자신의 행동을 개조할 수 있고 행동하기전에 사고할 수 있는 반면, 과거 지향적인 주부는 과거의 생각에 살고 옛날에 했던것을 답습하며 자신을 폐쇄시킨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가정관리자는 자원 보존 행동의 빈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주부일수록 미래지향적인 경향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자원을 창조하고 유용한 자원을 증가시키는 행동은 미래지향적 성향과 연결된다(Eligidaily, 1971, 151-154, 3, 30).

3. 가정생활 정보활용도

정보는 의사결정의 기본적 내용이며 가족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의사결정의 질적인 면이 효과적인 정보활용 및 처리 능력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반면에 정보활용 및 처리의 무능력은 가족 기능의 혼란과 불만족을 초래하므로 가족의 정보활용 및 처리 능력은 가족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과 관계된다(Paolucci et al, 1977, 113, 116). 가정관리시 의사결정자는 정보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가장 적게 들여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며, 이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의사결정을 해 본 경험의 많고 적음은 정보 가치를

판단하는 정확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Taylor, 1975). 정보활용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맞은 정보를 수집하고 적시 적소에 정보를 이동시키는 일, 왜곡함이 없이 전달되게끔 하는 일인데(Tushman & Nadler, 1978, 614)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양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가정관리자의 조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하다.

부언하면, 선택에 직면했을때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선택자가 정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거나 정보 해독능력이 부족할 경우 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여건일 경우, 정보 전달을 방해하며 정보의 선택 범위가 넓고 대안의 규모가 클수록 처리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특히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과다할수록 이러한 불확실성은 높아진다(Buckley, 1968, 182). 한편 Deacon과 Firebaugh(1988)는 인간이 장래를 위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축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목표성취를 위한 가정관리자의 조직적이고 합목적적인 계획수립 및 수행과 가정생활 정보활용 및 처리 능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가족결속도

가족결속력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이다(최정혜, 김태현, 1991, 213). 스트레스 대처능력에도 영향을 주며(조희선, 1991) 정상적인 가족은 물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서도 파악이 가능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결속력을 가족의 정서적 상호의존, 상호협조 및 도움 행동과 가사참여, 가사분담의 차원으로 설정해 보았다. 이러한 차원에 입각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족 결속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속감은 개인의 긴장과 인성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며 또한 가족관계에서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애정적 및 성적인 관계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나 상대방에 대해 예의를 지키는 일, 그리고 상대방을 염려하고 관심을 갖는 일(Bell & Vogel, 1968, 25-26)등이다. 특히 도움행동은 가족

결속력의 표시자이며(Markider, Bildt & Ray, 1986, 507) 힘을 보태거나 피로움과 어려움을 덜어주는것 그리고 어떤 상태를 촉진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담, 동정, 관용, 협동, 자선행동 등 친사회적 행동 즉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이나 집단에 이익이나 도움을 주려는 행동범주의 한 영역이다(장은숙, 1990, 13-14). 가족은 생활 지지적 체계로서 인간애와 관련되고 생활의 의미와 질을 부여해주는 사회적 조직에 의존하며(Hook & Paolucci, 1970, 316) 상호의존적 혈연체계로서 활동과 상호보조의 망으로 연계되어 있는데(Phelan, 1979, 318) 가족성원들사이에 보조와 서어비스 교환등은 기능적인 면에서 결속력을 유도할 수 있다(Bengtson et al, 1990). 또한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가정일에 대한 협조와 지지는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가족간의 유대감 및 친밀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내 일에서 남편들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Okley, 1974, 48) 송혜림(1988, 42-48), 이정우(1972), 서영숙과 조필교(1975)는 한국가정에 있어서 가정내 일은 여성의 일인가 남성의 일인가에 따라 분담되고 도움행동이 이루어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볼 때 가정일에 대한 남편의 참여 및 도움행동의 증가는 주부의 가정내 일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고 부부가 가정 일에 대한 협조와 참여도가 증가함으로 인해 부부로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의식을 소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의 이러한 태도를 모델시하는 자녀에게도 가정일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이로서 가족간의 유대감과 친근감이 형성되어 가족간의 화목과 단란한 가정

생활이 영위 될 수 있을 것이다. 두경자의 연구(1981, 4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내의 일에 참여한 아동일수록 사회성, 책임성, 활동성, 사려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가족간의 도움을 주고 받는 행동과 심리적 및 정서적 지지 그리고 협동하는 태도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가정관리자의 관리 유형이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유형과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시간지향)을 외생변수로 생활정보활용도를 내생변수로 가족결속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배경변인에 따라 가정관리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가설 1] 배경변인에 따라 가정관리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가정관리 유형별로 가족결속도에 미치는 제 영향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하여 수정, 보완한 설문지이며 가정관리 유형, 생활정보 활용도, 가족결속도 시간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네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 가정관리유형

가정관리유형에 관한 문항은 Nichols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인간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낸 10문항과 과업중심적 성향을 나타낸



그림 1. 연구모형.

10문항으로 항상 그렇게 한다면 5점, 전혀 그렇게 안한다면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인간중심적 성향은 $\alpha=0.75$ 이었고, 과업중심적 성향은 $\alpha=0.74$ 였다.

2) 가정생활 정보활용도

가정생활 정보활용도에 관한 문항은 이정우, 오경희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정보인식도 설문문을 수정, 보완하여 가정생활정보를 항상 활용하면 5점, 전혀 활용한일이 없으면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가정경제, 여가 및 건강, 환경오염 그리고 자녀양육 등의 정보로 구성하였는데 $\alpha=0.90$ 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입증하였다.

3) 가족결속도

가족결속도에 관한 문항은 Olson, Partner와 Lavee연구를 참조하고 가사분담 및 도움행동과 가사 참여 등에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11문항을 작성하여 항상 그렇게 한다면 5점, 절대 그렇게하지 않는다면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를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가족결속도 문항 즉 도움행동을 위주로 한 문항만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Cronbach- α 계수를 구한 결과 $\alpha=0.70$ 이었다.

4) 시간지향성

시간지향에 관한 문항은 Kluckhohn과 Strodtbeck (1961)의 가치성향 척도중 시간 지향에 관한 문항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후 8가지 하위영역별로 과거와 미래 문항을 절대 찬성한다면 5점, 절대 반대한다면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나서 과거와 미래의 문항을 하위영역별로 동일선상에 놓은 형태로 하여 절대 반대한다면 0점으로 하고 과거문항의 '절대 찬성한다'를 -4점으로 미래문항의 '절대 찬성한다'를 +4점으로 하는 9점 척도로 변환한 후, -4점에 가까울수록 과거지향 성향이 높고 반면 +4점에 가까울수록 미래지향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1

명이상 둔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절차는 가정생활 주기별로 144부씩을 배포하여 층화표집을 하였는데 면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부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시기는 1992년 3월초에 200부를 예비조사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同年 4월초부터 중순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1000부 배포하여 900부를 회수하였으나 기재미비로 제외된 나머지 704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AS/P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판별분석(discrim, candisc, stepdisc) χ^2 -test, ANOVA(GLM), t-test, 회귀분석을 하였고 자기상관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D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1.5~2.5를 넘지 않았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는 VIF를 산출하여 10이 넘지않음을 확인하였다.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위해 β -value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관리유형

1) 배경 변인에 따른 관리유형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관리유형과의 관계를 χ^2 -test를 하여 알아보았다. 즉, 주부학력($P<.05$), 남편학력($P<.05$), 자녀수($P<.05$), 결혼지속년수($P<.05$), 가정생활주기($P<.05$)가 관리유형에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표 1). 즉 고졸이하의 주부는 과업중심적 관리유형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대졸 및 중퇴의 학력을 가진 가정의 주부는 과업중심적 관리성향이 더 높았다. 이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가정관리행동의 주요변수라고 한 Huquley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주부의 교육수준이 가정관리 조직유형에 주요변인이라고 밝힌 Barclay의 견해도 일부 지지적인 결과이다. 자녀수가 2~3명인 가정의 주부는 인간중심적 관리유형을 더 많이 취하였고 자녀수가 1명이거나 4명이상인 가정의 주부는 과업중심적인 관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관리유형

관리유형	주부 학력				주부 연령				
	국 출	중 출	고 출	대졸이상	39세이하	40-49	50세이상		
인간중심	5 (1.51)	14 (4.22)	67 (20.18)	82 (24.70)	72 (21.69)	69 (20.78)	27 (8.13)		
과업중심	17 (5.12)	16 (4.82)	74 (22.29)	57 (17.17)	54 (16.27)	73 (21.79)	37 (11.14)		
비 고	$\chi^2=11.47$ Df=3 P<.01** N=332				$\chi^2=4.19$ Df=2 P>.05 N=332				
관리유형	남편 연령				남편 학력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졸이상	
인간중심	50 (15.06)	60 (18.07)	52 (15.66)	6 (1.81)	7 (2.11)	46 (13.86)	100 (30.12)	15 (4.52)	
과업중심	50 (15.06)	52 (15.66)	52 (15.66)	10 (3.01)	25 (7.53)	47 (14.16)	79 (23.80)	13 (3.92)	
비 고	$\chi^2=1.52$ Df=3 P>.05 N=332				$\chi^2=12.69$ Df=3 P<.01** N=332				
관리유형	막내자녀연령				자 녀 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세 이상	1명	2명	3명	4명이상	
인간중심	58 (17.47)	80 (24.10)	26 (7.83)	4 (1.20)	24 (7.23)	92 (27.71)	43 (12.95)	9 (2.71)	
과업중심	49 (14.76)	73 (21.99)	29 (8.73)	13 (3.92)	30 (9.04)	63 (18.98)	45 (13.55)	26 (7.83)	
비 고	$\chi^2=5.95$ Df=3 P>.05 N=332				$\chi^2=14.34$ Df=3 P<.01** N=332				
관리유형	결혼지속년수					가정생활주기			
	9년 이하	10-29년	20-19년	30-39년	40년 이상	확립기	확대전기	확대후기	축소기
인간중심	33 (9.94)	66 (19.88)	59 (17.77)	7 (2.11)	3 (0.90)	18 (5.44)	91 (27.49)	43 (12.99)	16 (4.83)
과업중심	35 (10.54)	43 (12.95)	64 (19.28)	11 (3.31)	11 (3.3)	25 (7.55)	62 (18.73)	47 (14.20)	29 (8.76)
비 고	$\chi^2=10.52$ Df=4 P<.05* N=332					$\chi^2=10.49$ Df=3 P<.05* N=331			
관리유형	소 득				가족 형태				
	100만원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이상	확대가족		핵가족		
인간중심	24 (7.23)	79 (23.80)	47 (14.16)	18 (5.42)	35 (10.61)		133 (40.30)		
과업중심	20 (6.02)	75 (22.59)	51 (15.36)	18 (5.42)	42 (12.73)		120 (36.36)		
비 고	$\chi^2=0.58$ Df=3 P>.05 N=332				$\chi^2=1.19$ Df=1 P>.05 N=330				
관리유형	남편 직업				주부 직업				
	단순노무직	판 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기술·관리직	무	유			
인간중심	9 (2.91)	39 (12.62)	45 (14.56)	72 (23.30)	122 (36.75)	46 (13.86)			
과업중심	7 (2.27)	32 (10.26)	38 (12.30)	67 (21.68)	121 (36.45)	43 (12.95)			
비 고	$\chi^2=0.28$ Df=3 P>.05 N=309				$\chi^2=0.05$ Df=1 P>.05 N=332				

표 2. 시간지향성과 관리유형간의 관계

변 수	N	Mean	SD	F-value	χ^2 -value	Wilks' Lamda	유형으로 분류된 %	
인간중심적 관리유형	163	7.19	5.21	22.30***	0.87(Df=1)	0.93***	Person	Task
과업중심적 관리유형	162	4.56	4.83				100(61.35)	63(38.65)
전 체	325	5.88	5.19				65(40.12)	97(59.88)
							165(50.77)	160(49.23)

***P<.001

리성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과업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고 밝힌 Nichols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결혼지속년수 10~19년인 주부와 30년이상의 주부의 경우 인간중심적 관리유형이 두드러졌고 결혼지속년수 9년 이하와 20~29년인 주부의 경우 과업중심적인 관리유형이 더 많았다. 이는 결혼 초기 및 후기는 과업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결혼 중기에는 인간중심적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임정빈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가정생활 주기별로 볼때 확립기와 확대후기 및 축소기에는 과업중심적인 관리성향이 많았고 확대전기에는 인간중심적인 관리성향이 더 많았다. 이는 확대기에 인간중심적인 양식을 취한다는 임정빈의 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시간지향변인과 관리유형간의 관계는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므로 공분산의 검증을 위해 χ^2 -test를 하였는데 P<.05이므로 Pooled Covariance Matrix가 사용되었다. F-test를 하여 집단간의 유의수준을 검증한 결과 P<.001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2) 관리유형을 판별하는 변인과 판별식

가정관리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 중에서 가정관리 유형을 판별해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Stepdisc와 Candisc를 실시한 결과 표 3과 표 4의 결과를 얻었다. 즉 가정관리 유형을 판별해 주는 변인은 시간지향과 주부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판별계수로 비교해 볼때 주부의 교육수준이 0.7904로 더 크므로 판별력이 시간지

향보다 큰 변인인것으로 분석되며 표 4에 제시된 판별함수의 유의성 검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01).

판별분석의 결과 구한 판별식은 다음과 같다.

$$\text{Const} = -0.5 \bar{X}' \text{Cov}^{-1} \bar{X}_j$$

$$\text{Coefficient Vector} = \text{Cov}^{-1} \bar{X}_j$$

	인간중심적 관리유형	과업중심적 관리유형
상 수	-7.78	-6.11
주부의 학력(X1)	4.29	3.94
시간지향(X2)	0.15	0.06

$$Y = -7.78 + 4.29X1 + 0.15X2$$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 판별식)

$$Y = -6.11 + 3.94X1 + 0.06X2$$

(과업중심적인 관리유형 판별식)

이 두 함수식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또다른 연구에서 주부학력과 시간지향을 측정하므로서 조사대상자의 가정관리유형을 판별할 수가 있다. 다시말해서 두 함수식에서의 Y값이 큰쪽이 조사대상자의 관리유형으로 판별된다.

표 3. 표준화된 판별계수, 판별분석

변 인	Function	Wilks' Lamda	Prob<Lamda
시간지향성	0.3728	0.935	0.0001***
주부교육수준	0.7904	0.917	0.0001***

***P<.001

표 4. 판별계수의 유의성

Function	Eigen value	Percent of variance	Canonical corr	Significance
1	0.0948	100 %	0.2942	0.0001***

***P<.001

2. 가정관리유형에 따라 배경변인이 가족결속도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 유형별 배경변인이 가족결속도에 미치는 직·간접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배경변인 즉,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시간지향을 외생변수로, 정보활용도를 내생변수로, 가족결속도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경로분석을 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과 부인 학력 및 연령, 막내자녀 연령, 결혼지속년수,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남편직업, 소득, 시간지향은 응답자의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가족형태와 주부의 직업유무는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경

로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는 Durbin Watson-D와 VIF를 산출하여 알아본 결과 DW-D는 1.46~2.27로 자기상관의 존재가능성은 적다고 보며 VIF는 1.00~6.84로 1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표 5에 나타나 있으며 이들을 인과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1) 과업중심적인 관리유형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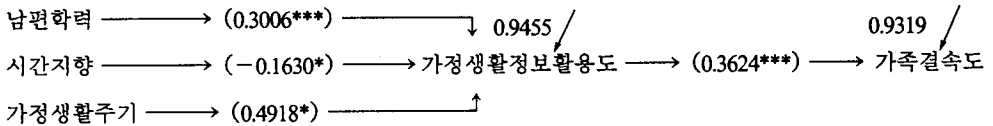
가족결속도는 생활정보 활용도($\beta=0.36$)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는 가족결속도의 전체 분산을 13%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남편학력($\beta=0.30$), 가정생활주기($\beta=0.49$)는 생활정보 활용도에

표 5. 가정관리유형별 가족결속도의 회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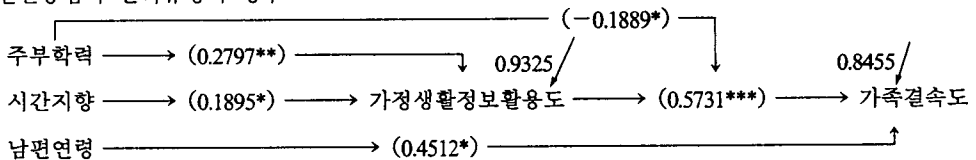
관리유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Value	F-Value	RSQ change	R ²	DW-D	VIF		
과업중심적	가족결속도	생활정보활용도	0.05	0.36***	21.93***	0.13	0.13	1.98	1.00		
		생활정보활용도	남편학력	6.13	0.30***	4.20**	0.04	0.10	1.46	1.21	
			가정생활주기	4.20	0.49*						
			시간지향	-0.4	-0.16*						
인간중심적	가족결속도	생활정보활용도	0.10	0.57***	11.56***	0.22	0.28	1.95	1.17		
		주부학력	-0.64	-0.18*						0.03	1.27
			남편연령	0.15							
	생활정보활용도	주부학력	4.95	0.27**	8.91***	0.10	0.13	2.28	1.02		
		시간지향	0.55	0.18*						0.03	1.00

*P<.05 **P<.01 ***P<.001

1) 과업중심적 관리유형의 경우



2) 인간중심적 관리유형의 경우



P<.05* P<.01** P<.001***

그림 2. 가정관리유형별 배경변인의 가족결속도에 대한 경로모형.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간지향($\beta = -0.16$)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시간지향, 남편 학력, 가정생활주기는 생활정보 활용도를 경유하여 가족결속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과거지향적인 주부일수록,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주기가 축소기를 향할수록 생활정보 활용도는 높고 따라서 가족결속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의 경우

가족결속도는 생활정보 활용도($\beta = -0.57$) 주부 학력($\beta = 0.18$) 및 남편연령($\beta = 0.45$)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 변수들은 가족결속도의 전체 분산을 28%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중에서 생활정보 활용도가 가장 영향이 컸으며 그 다음이 남편연령이었고 주부학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주부학력($\beta = 0.27$), 시간지향($\beta = 0.18$)이 생활정보 활용도의 총분산을 13%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시간지향, 주부학력은 생활정보 활용도를 경유하여 가족결속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미래지향적인 주부일수록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전체 정보활용도가 높고 따라서 가족결속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연령($\beta = 0.45$)은 가족결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남편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도가 높다. 그러나 주부의 학력은 가족결속도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부분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관리 유형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은 주부의 학력, 남편의 학력,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가정생활주기 및 시간지향이였다. 이 중 가정관리 유형을 판별해 낼 수 있는 변인은 주부학력과 시간지향이였다. 즉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을 나타낸다.

2) 가정관리유형별 배경변인의 가족결속도에 대

한 직·간접적 영향은 과업중심적인 관리유형의 경우 남편학력, 시간지향, 가정생활주기가 가정생활정보활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남편학력, 시간지향, 가정생활주기는 가족결속도에 간접적인 영향변인이었다.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의 경우 주부학력은 가족결속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시간지향, 남편연령은 가정생활정보 활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생활정보 활용도는 가족결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시간지향, 남편연령은 가족결속도에 간접적인 영향변인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가정관리유형은 관리자의 시간지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지향은 Brim등이 밝힌 바와 같이 인성적인 속성으로 가정관리자가 어떤 유형의 관리를 하는가는 가정관리자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인적속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인성형성에 주안점을 둔 양육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즉 여성이 성장하는 동안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인성적 체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인성적 체계는 관리행동에 반영되며 관리성향 중 어느 성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가는 Eligdaily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변수가 가정관리자의 주변환경에 대한 적응과 생활속에 통합성을 증대해 주므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가정관리자의 관리유형은 관리자의 인성적 속성인 시간지향에 의해 판별이 가능한 것이다. 부연하면 미래지향적인 주부는 가정관리행동 결과에 대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거나 행동에 앞서 사고해 보는 사람으로서 가족간의 애정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성장과 발달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인간중심적 성향을 더욱 선호하는 반면 과거지향적인 주부는 과거속에 집착하고 과거의 일을 반복 및 답습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관리자 자신이 폐쇄적이고 고정적이며 융통성이 결여된 관리행동을 하고 관리성과에만 집착을 하여 과거의 관리성과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과업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 두 성향의 관리유형 모두 가정생활의 주요한 자원인 정보를 많이 활용 및 처리하므로서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은 가족간의 애정적인 질의 차원을 중요시하고 가족간의 화목과 단란을 조성하기위해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가족간의 도움행동과 정서적 유대감 발달에 기여하는 관리유형이라 생각된다. 또한 인간중심적 관리유형은 가족들이 성장 및 사회화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관리유형이라 생각되는 반면에 관리의 성과적인면에 중점을 두지 않음으로 가정생활속에서 가정관리자가 통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된다. Nichol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친 인간중심적 관리를 할 경우 통제 부족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리 성과면의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관리자는 인간중심적 관리성향과 과업중심적 관리성향을 관리시에 상황에 맞도록 대처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일은 가정관리자의 지적능력이 작용하므로 Wetters가 주장한 바와 같이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창조성과 자원활용성이 높으므로 지적능력이 높은 주부는 가정관리 행동에 앞서 사고를 하여 알맞은 정보를 입수 및, 처리하고 자원 활용을 많이함은 물론 가족간의 애정적 자원 즉 정서적 및 감성적 자원을 재창조하여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 및 침근감 형성에 기여하므로써 가족결속도가 증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부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주부자신의 지적능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가정생활의 필수적인 자원인 정보에 대한 처리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가족간의 결속력을 증진시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으로 이끌 수 있는 가정관리자의 주요한 인적자원이 되므로 주부의 지적능력의 향상을 위한 가정과 사회의 적극적이고 지지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두경자(1981). 아동의 가사작업참여와 인성발달과

의 관계. 상명여대 석사논문.
 2) 서영숙·조필교(1976). 가족성원간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3) 이정우·오경희(1992). 가정생활 정보인식도와 가정관리행동 유형간의 관계. *속대논문집*, 33집.
 4)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 양식 및 가정생활 만족. *이대박사학위 논문*.
 5) 조혜정(1990). 가정관리행동과 가정관리 정보요구도 및 정보 노출도와의 관계분석. *목포대 논문집* 11(1).
 6)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7) 채옥희(1987). 가사노동의 조직화 및 관리자 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8) Barclay, N.A.(1970). *Organizing of household Activities By Home Managers*. The Ohio State University Ph.D.
 9) Brim, Class, Lavin & Goodman(1962). *Personality & Decision Process*. Stanford University Press.
 10) Eligidaily, D.A.R.(1971). *Time Orientation & Activity pattern of Selected Home Makers*.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
 11) Huquley, D.C.(1976). *Managerial Orientation and Its Effect on Level of Living Master's thesis of Iowa State University*.
 12) Mamaw, C.R.(1967). *Organizational Patterns of Home Makers Related to Selected Predispositional & Situational Characteristics*. The Penn. University Ph.D.
 13) Nichols, A.(1964). *Person Centered & Task Centered Styles of Organiz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
 14) Sponcil, M.M.(1975). *Household Task Organization As Reported By Sixty-Seven Employed Home Makers*. Master's thesis of Kentucky University.
 15) Tasker, G.E.(1962). *Case Studies Home Makers' Organization*. Master's thesis of Cornell University.
 16) Wheeler, Sis.M.S.(1971). *Communication Behavior & Task Collaboration In Families of Low Socio-Economic Levels*. The Penn. State University Ph.D.